

“전능하신 하나님 (렘 32:17~19, 26~27)”

청소년/청년/장년 가정이음 예배 순서지 - 9월 넷째 주

오늘 이야기

오늘의 일상을 가족과 함께 나누세요.
가족과 함께 오늘의 질문 중 하나를 골라 나눠주세요.

나와 가까운 사람 중에 나보다 큰 점이 가장 많은 사람은 누구인가요? 그 사람의 좋은 점과 좋지 않은 점을 이야기해봅시다.

요즘 내가 갖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그것을 가질 때 내 삶에 일어나게 될 변화는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성경 이야기

성경을 읽는 것은 빛과 소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서로 돌아가면서(윤독) 오늘 말씀을 소리내어서 3번 읽어요.

〈하나바이블 교리공과 5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문)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답) 하나님은 모든 일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한 분입니다.

(렘 32:17-19, 26-27)

17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퍼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18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지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19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니이다

26 그 때에 여호와와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27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교리설명]

1. 하나님의 성품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완전하고 초월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이를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2. 비공유적 속성에는 자존성, 불변성, 완전성, 영원성, 편재성, 전지성, 전능성이 있습니다.

3. 하나님의 비공유적 속성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린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소망을 얻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9월 생활미션

흔들리지 않는
믿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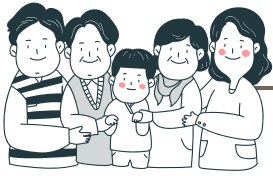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며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가족과 붙들고 싶은 말씀 한 구절을 정해 함께 읽고 기도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다짐하면 미션 완료!

** 미션 수행 후, 부서 담당교역자에게 사진을 찍어 보내 인증해주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필요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 부분과 불편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지 나눠봅시다.

사람이나 상황이 변하면서 실망했던 경험이 있다면 나눠봅시다.
그 경험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지 이야기해봅시다.

오늘 살피 본 하나님의 모습 중에 지금 내가 가장 붙잡고 의지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 이유와 함께 나눠봅시다.



9월 넷째 주 매일 기도



주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이 우리의 능력을 넘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월요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배당을 넘어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는 첫 날,
우리가 향하는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세요. 주일에 들은 말씀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는 언어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화요일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 순 행복축제를 지나는 이 기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를 통해
이웃들에게도 전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필요한 이웃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함으로 준비하여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수요일

온 땅의 통치자이신 하나님, 오늘도 온 세상 이곳 저곳에서 하나님을 외면해 일어나는 악함과 고통과
죽음으로 눈물 흘리는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웃음을 잃어버린 많은 이들이 주님의 구원을 보며 다시 소망을 얻고
주님과 함께 사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목요일

사랑의 하나님, 우리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상처 받은 사람들의 마음이 분노로 드러날 때마다,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세요. 서로를 자기 자신처럼 여겨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남녀노소
모든 이들에게 심겨져 이제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나라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금요일

은혜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더 자라고 성숙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언제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분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의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토요일

놀라우신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함께 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되게 해주세요.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